

저자와의 대화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펴낸 권영한씨

“부처님 가르침따라 불심씨앗 뿌렸을뿐”

‘절하는 법’ ‘향공양’ 등 사찰기본예절중심 구성
주련 연구서 시작...3백여 사찰찾아 자료 정리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저를 시켜서 부처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최근 교보문고와 불서전문책방 여시아문 집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기록하는 화제의 책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의 저자 권영한씨(65·안동경안중고교)는, 한권의 책을 통해 부처님께 다가가는 기회를 그만큼 넓혔다는 주위의 칭찬을 부처님 뜻으로 돌린다. 단지 자신은 실무전문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수년 동안 짚어 다닌 사람들중에도 의외로 짚어 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어찌다 들르는 불교신자도 아닌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

니가?”
《예불하는 마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찰의 뜻을 제대로 알리고 불심의 씨앗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타까움과 불교사랑의 산물이자, 따라서 이 책은 불교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왜 산에 절이 있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일주문 대웅전 등 사찰의 전각, 참배를 마치고 나오기까지를 통해 사찰과 불교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끔 ‘산과 절’ ‘절을 찾는 마음’ ‘절을 찾아서’ ‘도량을 지키는 관속들’ ‘금당’ ‘참배를 마치고’ 등 11장으로 구성했다. 여기에다 387컷의 사진과 30항목의 그림, 18개의 도표를 실어 절하는 법, 향공양, 촛불

켜는 법 등 사찰에서의 기본예절을 설명했다.
권씨는 이 책을 펴내기 위해 3년반의 시간을 쏟아부었다. 산과 그속에 자리잡은 사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산이 곧 절이요, 절이 산이다. 산은 절의 품이요, 절은 산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절기동에 적혀있는 글귀인 주련을 연구하려 다니다가 시작했다. 전국의 3백여 사찰을 찾아 자료를 정리하고 카메라에 담았다. 조금 유명하다 알려진 사찰치고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다. 스님들이 부처님존상 촬영을 막는 어려움도 겪었다. 촬영한 사진이 안나온 경우는 그 사찰을

다시 찾아야 했다.
“불교를 모르고 진정한 우리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자들은 물론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읽어보길 권합니다.”
‘사대육신’ ‘이관사관’ 등의 말이 불교에서 유래했듯이 우리문화의 한가운데는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어려운 불교용어 풀이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가령, ‘공양’이란 말은 ‘절에서의 식사를 공양이라 한다’고 풀이해 써 낯선 불교용어 때문에 주저하는 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권씨는 사찰의 향견설화 및 심우도 등 사찰박화를 소개하는 책도 펴낼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교보문고
2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3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전원문화사
4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5	순타니파탄	법정	샌터
6	미리배의 실마리	이정설 역	시공사
7	100문100답 - 입문편	권장부	대원정사
8	어린이 팔만대장경	신현득	현암사
9	부처님이 좋아	이정훈	불광
10	살아있는 국토박물관	안경애	심지

책방 여시아문 집계

구입문의: (02)737-0695

컴퓨터 통신 월간 '반야' 천리안 동호인에 화제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지난 1월부터 게재되고 있는 전자잡지 월간(반야)가 천리안 불교동우회원들은 물론 천리안 가입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초의 불교전자잡지인 <반야>는 24면 분량에 '칼럼·최북소리' '경전강요' '산사기행' '산사열전' '불교시각상' '불교개론' '컴퓨터강좌' 등을 실는다. 매월 25일 발송된다.
컴퓨터세대들이 불교의 가르침이 묵묵히 있고 있음을 반영하듯 첫호가 나간이후 독자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났다. '삼화가 본론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충고에서 '불교공부의 계기를 주었다'는 격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발행인 김홍호씨(소설가)는 '컴퓨터세대에게 불교를 정확히 알리고자 전자잡지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60년으로 증명하고 공부자에 전자잡지를 통해 본격적인 전자자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 숲씨가 낙락장승되니니(윤정광 지음)=근대 한국

새로 나온 책

▲금강경이야기·상(법륜 지음)=현대인들에게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서의 전환을 제시하는 법론상의 금강경 설법집. 저자는 새로운 삶을 억압하는 모든 쉼터 상(相)으로부터의 벗어나, 배종되 배종되는 생각이 없는 무극상보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일체 범우어(一切法無我)의 가르침이 금강경의 요지라고 설명한다. (정호출판사, 6천8백원)
▲예념미타도량참법(월운·각성 옮김)=중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제종부 첫째권으로 정토신앙을 표현한 표제의 참법과 자비도량참법을 우리말로 번역해 실었다. 예참이란 불보살님께 예배 할회함으로써 공덕을 이루어 마침내 가피를 입어 경은함을 얻게 하는 실질적인 신앙방법이다. (동국역경원, 1만원)
▲부처 예수 공자의 나라(공종원 지음)=우리 사회의 종교간 갈등과 긴장관계의 심각성을 불교적 입장에서 제기한 칼럼집. 아직 우리 사회는 기독교와 이슬람 또는 힌두와 이슬람 사이의 유혈 충돌같은 비극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종교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따른 종교간의 이해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다. (반야, 5천5백원)
▲선시 100수(이심 편지)=육조혜능 왕유 왕안서 등 중국 당송시대의 선사와 시승



문인들의 선시 가운데 예술표현이 뛰어난 선시 100수를 선정. 원문을 읽고 운제스님이 우리말로 풀이했다. 서종교화 백의 삼화 50여장을 곁들였다. (불교명상, 4천3백원)
▲동남도 못하는 스님(김원환 엮음)=달마대사에서 성철 스님까지 선사들의 선문답을

풀은 선이야기. 238편의 선문답을 참회 수행 무심 해탈 생활선문답 등 5장으로 나눴다. (우연기획, 6천5백원)
▲연꽃으로 피어나리(이해속 지음)=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병고를 오직 관음보살을 염하는 것으로 극복한 불교신앙 수기 신앙담을 경전을 공부한 바탕 위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은금나라, 6천원)
▲종교의 반성(박영규 지음)=우리나라 종교단체와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자성을 촉구하고 있는 칼럼집. 피어선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한 저자는, 종교의 목적은 인간간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다. 서간문 형식의 담담한 문체에 직관과 통찰이 번뜩인다. (다나, 8천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아 함경

좋은 책들은 늘 나의 길이 되어준다. 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동까지 더해준다. 내가 고봉스러운 때 일수록 그 기쁨은 배가 되고 그 감동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문학작품이나 철학서적등 다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경전이 주는 감동은 또 다르다. 그것은 더 환한 세계다. 어떤 작품도 어떤 사상도 뛰어넘는 세계다. 도저히 나로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다른 세계가 거기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코끼리만큼 만져보고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만류의 경전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웬지 속스럽고 겸연쩍다.
경전 한줄 읽는 것이, 좋은 친구 한번 만나는 것에 비길 수 있다면, 나는 감히 평생 친구를 만난 기쁨을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환하게 해준 건 <반야>와 <아함경>이다. 두 경전은 다 내 마음을 평정시켜주고, 나를 속에서 구해준 있을 수 없는 경전이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

그때부터 어지럽던 마음이 차츰 안정이 되었고, 모던세계를 만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들이 가깝게 느껴졌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과 연민을 함께 느끼기도 했다.
쾌해적이고 냉소적인 세상에 대한 내 눈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불심이 강한 집안에서 자라서 불교에 대해 늘 관심과 애정이 있었지만, 경전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불교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경전은 그 크고 작은 이룬



천 양희 (시인)

“마음이 세상 이끌고 유지한다” 선악·인연담등 인생지침 가득

나는 한때 생애에 대한 절망 때문에 죽을까지도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 경전을 불생각조차 못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온통 마음이 캄캄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죽을 결심을 하는데 문득 절이 생각났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생각 나지 않는다.
절을 찾아가던 길에 나는, 절보다 먼저 만났던 속에서 파란빛을 피우고 있는 풀 한포기를 발견했다. 강추위 속에서도 곳곳하게 버티고 있던 풀 한포기.
나는 그 풀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 부끄러움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까지 책꽂이에 꽂혀있기만 하던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어린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경을 읽으시던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풀 한포기가 나를 바꾸어놓은 것이다.

제가 아니다. 비록 그 양이 적고 짧다 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열함과 신비함이 있다.
<반야>가 불교의 진수라던 '아함경'은 최초로 설계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지름이 되는 교훈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아함경>에는 불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불교의 깊은 교리를 담은 짧은 경들이 많이 모여 있다. 선·악의 구별, 인연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훈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반야>처럼 불자들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경전일지 모른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그 마음이 한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하느니라' 잊혀지지 않는 <잡아함경>의 한 구절이다.

佛敎聖地巡禮 新春海外旅行 新婚旅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출발일: 3월 / 9, 14, 16, 21, 23, 28, 30 4월 / 4, 6, 11, 13, 18, 20, 26, 27

대만 5일 ₩595,000	서울-대북-일원담(1박)-고흥-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 3월 / 15, 22, 29 4월 / 5, 12, 19, 26
스리랑카 6일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부와-업볼라-켄디(1박)-콜롬보(1박)-서울 3월 / 10, 17, 24, 31 4월 / 7, 14, 21, 28
미얀마-태국 8일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레우-양곤(1박)-방콕(2박)-서울 3월 / 10, 17, 24, 31 4월 / 7, 14, 21, 28

최고의 여정 · 최상의 서비스 · 최대의 기쁨

방콕·파타야 5일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3월 /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30 4월 / 1, 2, 5, 8, 9, 12, 15, 16, 19, 22, 23, 26, 29, 30
방콕·푸켓 5일 ₩649,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3월 / 11, 18, 25 4월 / 5, 12, 19, 26
동남아 3국 5일 ₩590,000	서울-쿠알라룸푸르(1박)-싱가포르(2박)-마닐라(관광)-기내(1박) 3월 / 8, 15, 22, 29 4월 / 5, 12, 19, 26
방콕·푸켓·싱가포르 6일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포르(2박)-서울 3월 / 14, 21, 28 4월 / 4, 11, 18, 25
하와이 5일 ₩649,000(일금) ₩699,000(토금)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 3월 /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4월 / 1, 2, 5, 6, 8, 9, 12, 13, 15, 16, 19, 20, 22, 23, 26, 27, 29, 30
동경·하코네 4일 ₩945,000	서울-동경(2박)-하코네(1박)-서울 3월 / 9, 16, 23, 30 4월 / 6, 13, 20, 27
유럽 5개국 10일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 3월 / 9, 16, 23, 30 4월 / 4, 6, 11, 13, 18, 20, 25, 27
사이판 4일 ₩549,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3월 / 9, 12, 16, 19, 23, 26, 30 4월 / 2, 6, 9, 13, 16, 20, 23, 27, 30
괌 4일 ₩549,000	서울-괌(3박)-서울 3월 / 9, 12, 16, 19, 23, 26, 30 4월 / 2, 5, 9, 12, 16, 19, 23, 26, 30
호주·뉴질랜드 8일 ₩1,270,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보우(2박)-오슬랜드(1박)-시드니(2박)-서울 3월 / 9, 14, 16, 21, 23 4월 / 1, 2, 4, 6, 8, 9, 11, 15, 16, 18, 20, 22, 23, 25, 27, 29, 30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파타야 5일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일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전 일일 비디오텍 무료제공-
대만(화련) 4일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괌 4일 ₩670,000	서울-괌(3박, 4박)-서울
사이판 4일 ₩670,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일 ₩649,000(일금) ₩699,000(토금)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호주 5일 ₩860,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여행조건 10시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일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